

이 자료는 2004. 4. 27(화) 석간부터 사용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報 道 資 料

題 目 : 이헌재 부총리, 「런던 한국경제설명회」 개최 및 AMEC사 투자유치 MOU 체결

- ☐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4.26일(월) 런던에서 “한국경제설명회”를 개최하고, 신용평가사 관계자 면담 및 투자유치 MOU 조인식 등의 행사를 가짐

< 한국경제설명회 >

-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4.26일(월) 12:30(현지시각) 런던에서 250여 투자자와 국제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「한국경제설명회」를 개최하였음
- 이날 이 부총리는 기조연설(Korea : A Strong Partner in a Changing World)을 통해
 -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전망, 정치상황 변동과 무관한 일관된 경제정책 추진* 등을 설명하고,
 - * 투자·고용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가속화, 지속적 구조개혁 추진,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 등
 - 경제자유구역,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등 구체적 투자기회를 소개,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

< 피치사 면담 >

- 이 부총리는 이날 세계 3대 신용평가사중 하나인 피치사의 David Reily 상무(국가신용등급 평가위원회 위원장) 등 인사를 면담하여 최근 한국의 경제현안 및 총선 이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였음

< AMEC사의 투자유치 MOU 체결 >

- 이 부총리는 4.26일(월) 오후 런던에서 AMEC社の Jock Green-Armytage 총회장과 인천공항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관한 20억불 규모의 외국인투자유치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음

< 외신 인터뷰 및 국제금융계 인사 면담 >

- 또한, 이 부총리는 4.25(일) 오전 로이터통신, 4.26일(월) 오전 영국의 대표적 경제지인 「파이낸셜타임즈」와 각각 인터뷰를 하였고, 스탠다드차터드 회장 · UBS 부회장 등 영국 금융계의 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

※ 별첨1 : 주요 질의 · 답변내용

별첨2 : AMEC사의 20억불 투자유치 관련

報道資料 生産課 :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Tel : 2110-2367~9
(국제금융과장 : 최 종구, 서기관 윤 태식)

報道資料 生産課 : 경제자유구역기획단 TEL: 2110-2591
(과장 신형철, 사무관 이경용)

報道資料 生産課 : 건설교통부 공항계획과 TEL: 2110-8260
(과장 여형구, 사무관 이익진)

報道資料 生産課 :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기획팀 TEL: 032) 741-2271
(과장 신형철, 사무관 이경용)

財 政 經 濟 部 公 報 官

주요 질의 · 답변내용

□ 한국정부가 추진중인 내수진작 대책의 내용은?

-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및 소득향상이 필요하며, 특히 신용카드사, 신용불량자, 가계대출 등의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
- 현재 이러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대부분 해소되었으며, 적어도 상반기중 내수가 회복될 전망이나 본격적인 회복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
- 정부는 내수회복을 위해 임시적이고, 단편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음.
- 다만, 내수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, 과도기적으로 과감한 재정집행,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

□ 이동 통신회사 등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 관련 규정을 변경할 계획은 없나?

- 현 시점에서 관련규정을 변경할 계획은 없음

□ 금융기관의 자본충실도와 관련된 논의에 대한 대응방안은?

- 이와 관련, 선진국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, 동 기준이 적용될 경우 emerging market이나 중견 금융시장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봄

-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한국 금융기관들은 자본충실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

□ 한국정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동북아 금융허브추진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?

- 한국은 외환보유액, 공공연금 축적 등 자산운용부문에서 강점이 있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하는 특화 금융허브를 추진할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
- 이를 위해 국내 자산운용회사 육성, 외국 자산운용사 국내 유치, 한국투자공사(KIC)설립 등의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- 또한,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부실채권, 부실기업 정리 등 구조조정 수요가 많으며, 중국, 일본 등 인접국도 이러한 수요를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한 역내 금융시장의 중심 역할 수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

□ 헌법재판소의 탄핵관련 결정시기 및 결과에 대한 전망은?

-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시기나 결과에 대한 전망이 어려우나,
- 탄핵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
- 개인적으로는 5.13일 ADB연차총회 전까지 최종결정이 이루어지고, 탄핵이 기각되어 연차총회시 대통령이 개회연설을 할 수 있기를 희망

□ 산업은행,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의 채권발행이 spread 상승 등을 통해 외평채 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가?

- 국제채권시장에서 산업은행, 수출입은행 등 우량 한국물의 공급은 지속될 것이며, 한국경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이들 기관의 채권발행이 외평채 발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봄

□ 가계부채,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?

- 신용불량자 문제는 금융기관이 경쟁적으로 신용을 확대하고 또한 경쟁적으로 신용을 회수한데 기인하는 바 새로운 대책보다는 가계대출 및 신용불량자 규모가 점진적으로 줄어든 수 있도록, 소위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주력할 것임
- 기존에 발생한 신용불량채무에 대해 새로운 구제책을 제공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, 개인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자기책임 하에 본인소득으로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함
- 따라서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,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은 없으며,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봄

□ 중소기업 대출 증가문제에 대한 입장은?

- 중소기업 대출증가문제는 가계대출 및 신용불량자문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
- 비록 중소기업이 중국과의 경쟁과정에서의 구조조정,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, 최근 경기부진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, 이는 경영상의 일시적인 어려움에 해당되며,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

□ 잠재적 부동산버블가능성에 대한 입장은?

- 부동산 가격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음. 한국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버블뿐만 아니라 개발수요 증대에 의한 부동산 가격상승요인도 있으나,
 - 부동산 가격 상승이 1) 버블에 의한 경우 2) 개발수요 증대에 의한 경우 3) 상기 2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모두를 염두에 두고, 부동산정책을 수행하고 있음
 - 한국은 60년대 이후 고도성장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었는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켜 나갈 것임

□ 한국에 외국 자산운용사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은?

- 한국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추진전략의 하나로서 KIC설립을 추진하고 있음. KIC는 정부주도하에 설립되고 있지만 철저히 상업적 기반에서 운용되고, 보수, 경영 등도 국제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내·외국인 차별없이 능력에 따라 선발될 것임
 - KIC 자산운용과정에서 한국에 지점 등을 설치한 외국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KIC자산의 일부를 위탁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

□ 앞으로 1년간 한국경제의 활발한 내수회복이 예상될 경우 현재의 낮은 이자율과의 상충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?

○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물가상승압력이 증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. 한국경제가 개방되어 해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내수만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음

- 향후 2-3년동안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금리상승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봄. 다만, 이 과정에서 부동산버블 가능성은 예의주시하겠음

AMEC사의 20억불 투자유치 관련

□ 4.26(월) 영국 런던에서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AMEC사와(Jock Green-Armytage 총회장) 인천공항 국제업무 지구(IBC-II지역) 개발에 관한 20억불 규모의 외국인투자 유치 양해각서 서명

- AMEC사는 인천공항 북측 국제업무지구(80만평) 일대에 문화, 관광·레저, 업무, 주거시설 등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재원 20억불은 외국인투자를 유치
- 동 지구에는 2010년까지 국제업무단지, 호텔, 공연장, 워터파크(수족관, 해수온천) 등 레저시설과 고급 주거시설, 외국계 학교 등이 들어설 예정
-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정부는 범정부적 T/F를 구성하여 AMEC측과 협의해 나가고 하반기중 본계약 체결 계획

□ 기대효과

① 인천공항의 동북아 Hub공항 기능 제고

- 최첨단 업무, 위락시설을 개발하여 인천공항의 국제경쟁력과 기능 보강
- 해외관광객, 환승객, 공항·물류시설 종사자에 대한 휴식 공간 제공(국제항공사,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에 기여)

② 건설을 추진중인 제2연륙교를 통해 송도의 국제업무지구 (Gale社 127억불 투자)와 연계발전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

③ 아울러 영국 굴지 기업인 AMEC의 network를 활용, 영국 유수의 기업·학교를 유치하여 영국·유럽 등으로 외국인 투자지역 다변화

□ 한편,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구 일대 개발과 관련하여 그 동안 재경부는 건교부 및 인천국제공항 공사와 본 MOU 체결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왔음

□ 국제적 지명도가 있는 AMEC社가 본격 참여하게 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